

교안 개발 : 허니에듀
 허니에듀는 '공부가 꿀처럼 달콤한 세상'을 꿈꾸는 교육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유초등맘들의 커뮤니티 허니에듀를 운영하며 다양한 독서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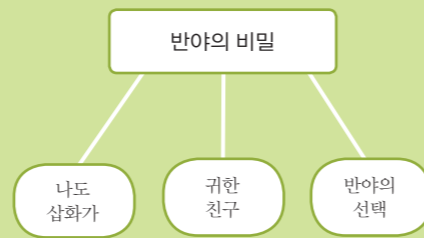
반야의 비밀

윤숙희 글 | 김미경 그림
 바람의아이들 | 9,500원 | 172쪽 | 초등 고학년

책 소개

이 책은 우리나라 웅녀 신화를 모티프로 하는 작품으로, 지리산 시골 학교로 전학 온 도시 아이 선재가 웅녀의 후손 반야와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자연의 소중함 등 다양한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신비로운 비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독후활동 주제망



독후활동 시작하기

1. 이 책의 줄거리를 생각할 때, 《반야의 비밀》 말고 다른 제목을 짓는다면 뭐라고 하는 것이 좋을 까요?

현재의 제목 《반야의 비밀》	⇒	새로 지은 제목 ① ② ③
---------------------------	---	-------------------------

2. 주제, 소재, 인물, 배경 등 이 책에 대한 핵심어를 다섯 가지 이상 써 보세요.



3. 위 2번에 쓴 핵심어를 모두 포함하여 이 책을 다른 친구에게 소개하는 문구를 써 보세요.

현재의 문구 웅녀의 후손 반야와 도시 아이 선재의 신비하고 특별한 만남!	⇒	새로 쓴 문구
---	---	---------

독후활동 주제 1 나도 삽화가

이 책에는 매 장을 시작하는 페이지에만 작은 삽화가 하나씩 들어 있을 뿐, 다른 부분에는 삽화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오직 읽은 내용만으로 이야기 속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해볼 수 있지요. 다음 각 장면에서 분위기 또는 인물의 감정을 파악해 보고, 이것이 잘 드러나게 삽화를 넣는다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장면	상황, 분위기 또는 인물의 감정	내가 그린 삽화
1. 여자아이가 지혈이라도 하려는 듯 참나무 잎을 상처에 대자 선재는 확 밀어 버렸다. “쿵!” 엉덩방아를 찧은 채 여자아이가 말없이 쓰아보았다. 원망 가득한 눈빛이었다. 선재는 뜨끔했다. 여자아이가 일부러 상처 낸 게 아니라 자기를 구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는 걸 알면서 화를 내다니…….		
2. 소화도 시키고 기분 전환도 할 겸 게임이나 하려고 가방을 열었다. 그런데 없어졌다. 급식 먹으러 가기 전에 가방에 넣어 두었던 휴대폰이 사라졌다.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았다. “뭐 찾아?” 명곤이가 교실로 들어서며 물었다. 선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없, 없어졌어. 내 휴대폰이 없어졌어.”		
3. 어느새 반야의 컴퓨터 화면에는 수십 개의 별이 반짝거렸다. 그냥 별이 아니라 모두 별자리였다. 선재가 할아버지 집에서 올려다 본 여름 밤하늘 풍경 그대로였다. “반야야, 잘했다. 정말 잘했어.” 선생님이 반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다들 이리 와서 반야가 만든 거 구경해라.” 아이들이 반야 자리로 모여들었다. “정말 반야 네가 만든 거야? 멋져! 정말 멋져! 밤하늘을 옮겨 놓은 것 같아.”		
4. 선재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곰 한 마리가 뛰어왔다. 나무를 흔드는 곰보다 작지만 무척이나 날쌔다. 덩치 큰 곰을 밀어붙이며 나무를 흔들지 못하게 말렸다. 자기를 방해하는 곰이 귀찮은 듯 덩치 큰 곰이 작은 곰을 앞발로 후려쳤다. 바닥으로 나뒹굴어도 작은 곰은 다시 일어나 크으응 하며 나무 흔드는 곰을 말렸다.		

독후활동 주제 2 귀한 친구

1. 선재가 지리산 시골 학교로 전학 간 날 선재의 아빠는 선재에게 “그곳에서 돈으로도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친구를 사귀길 바란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1) ‘돈으로도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친구’란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나요?



(2) 선재는 지리산 시골 학교에서 그런 친구를 사귀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함께 써 보세요.



2.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선재와 상구가 서로 화해하고 친구가 되는 장면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어디 봐봐.”
 고통스러워하는 상구를 보자 선재가 주뻗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선재는 상구의 운동화를 벗긴 뒤 발을 주물렀다. 전에 발을 곁질렀을 때 할아버지가 지압해 줬던 기억을 떠올리며 골고루 근육을 풀어 주었다. 선재의 그런 행동이 의외인 듯 상구의 눈동자가 가늘게 흔들렸다. (중략) 묵묵히 땅만 보고 걷던 상구가 침묵을 깨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미, 미안해.”
 “그럴 땐 고맙다고 하는 거야.”
 선재가 툭한 얼굴로 말하자 상구가 천천히 입을 떼었다.
 “최신형이라 구경 좀 하다 가방에 넣으려고 했어. 근데 게임하다가 반야한테 들키고, 너마저 도둑으로 몰자 화나서 화장실 창문으로 던져 버렸어.”
 휴대폰 이야기였다. 선재는 걸음을 멈추고 상구를 바라보았다.
 “나중에 갖다 주려고 했어. 반야가 먼저 찾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지만…….”
 상구의 귀 끝이 빨갛게 달아오른 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반야는 끝까지 너를 감싸 주려고 했어. 반야한테도 사과해.”
 상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화해한 거지?”
 앞서가던 명곤이가 뒤돌아보며 씩 웃었다. 그러더니 선재와 상구 사이에 끼어들며 어깨동무를 했다.
 “친구를 사귀는 건 세상을 얻는 거와 같다고 했어. 우리 한 번 세상을 얻어 보자, 친구야!”

(1) 두 사람이 화해하고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된 선재와 상구의 말 또는 행동을 써 보세요.



(2) 선재와 상구처럼 여러분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와 어떤 일을 계기로 화해하고 친해진 경험을 써 보세요.



독후활동 주제 3 반야의 선택

1. 반야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 지리산을 떠날 것인지, 곰으로 지리산에서 동물들과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선재야, 사람이 되면 행복할까? 곰보다 행복할까?”
 언젠가 사당에서 만났을 때도 반야가 선재에게 물었었다.
 “옹녀는 사람이 되어서 행복했을까?”라고.
 선재가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반야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할머니처럼…… 할머니 대신 동물들을 돌보며 지리산을 지키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반야로서는 그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중요한 문제였다. 열두 살에 찾아온 기회, 앞으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옹녀처럼 자신의 운명을 바꾸느냐, 아니면 지금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곰 인간으로 사느냐, 드디어 결정을 내릴 순간이 온 것이다. 그때가 온 것이다.

(1) 윗글에서 밑줄 친 물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점에서 그런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자기 생각을 서술하세요.



(2) 만약 내가 반야라면 이런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요? 그 이유와 함께 써 보세요.



2. 반야가 사람 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떠난 것을 알고 선재는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선재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써 보세요.

“말해 줘야 했어요. 말해 줘야…….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인지, 반야가 물었을 때 말해 줘야 했어요. 사람이 돼서 내 옆에 있어 달라고, 내 친구가 되어 달라고……. 그때 말했어야 했어요.”
 팔찌를 가슴에 쥔 채 선재가 흐느꼈다.
 “반야 때문에 이곳이 좋아졌어요. 이제 나무타기도 잘하고 동물들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난 반야한테 아무것도 해 주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내가 반야 옆에 있어 줘야 했는데……. 반야가 나를 지켜 줬듯이 나도 반야를 지켜 줘야 했는데……. 내 잘못이에요. 내가 지켜 주지 못해서 떠난 거예요.”



※ 예시 답안은 허니에듀 또는 어린이책사랑모임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허니에듀밴드 : band.us/@honeyedu • 허니에듀카페 : http://cafe.naver.com/honeyedu • 어린이책사랑모임카페 : http://cafe.naver.com/cheknoa